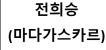
한빛 센교 소식 나눔

선교사	선교 사진	선교 현황	중보 기도 제목
김익진 (스와지란드, 남아공, 콩고)		지난해 12 월에 독일로 귀국하여	• 건강을 고려하여 사역지와 사역의
		Aachen 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방향을 다시 정비하여 부르신 곳에서
		방문은 건강이 좋지않아 여러가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 온 것이기	•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마지막
		때문에 5 월까지 독일에 머물며 심신의	남은 생애 하나님 나라 이뤄지는데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나승필 (난민 사역)		교회를 중심으로 호스트와 예배를	• 회교권 난민들과 비난민 신자들이
		중심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인격과 생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대면/온라인	변화가 있도록
		예배와 주중에 그룹 미팅, 환자나	• 소수의 평신도 일꾼들이 말씀과
		소외된자 개별 심방과, 어려움에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사람들에게 소포도 보내고 인터넷이	● 환자들과 난민 심사에서 추방된
		없는 난민에게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지체들을 경제적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모바일 데이터도 보내고	있도록
		있습니다.	• 고국에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사망한
			가족들때문에 슬퍼하는 난민들을 잘
			위로하며 섬길수 있도록

이재영 (불가리아)	

매 주일 소피아 교회예배를 돕고 주일 오후에는 보테프그라트라는 소피아 주변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활동적인 제약이 많아서 주일 예배 찬양과 성찬 그리고 작년부터 가끔씩 주일 설교를 불가리아어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 년에는 소피아 교회와 보테브그라트 교회에서 6 차례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 부터는 격월에 한번씩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기독교 교육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 부르가스 감리 교회를 위해
- 노아 / 예아의 학업과 현지 적응을 위해
- 김정은 선교사 건강 회복을 위해
- 가족 모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한국에서 치료를 잘 마치고 3 월 23 일 MADAGASCAR 로 입국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4 개의 호산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 어린이들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선교사가 되기를
- 새로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비용이 채워지기를 - 그간 한빛교회의 헌금으로 소렌토 자동차를 선교용으로 잘 사용하여 왔는데, 노후현상으로 차가 많이 약해져서 북쪽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한 24 시간 장거리 주행은 위험할것 같아 새로운 선교 차량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